

“청년들과 경험·지식 공유하며 성장 이끌어요”

전남도 우수 귀어인 선정 해남 어불어촌계 신재광 총무
 지식 공유하는 청년모임 공간 만드는 등 마을 ‘인싸’로 꼽혀
 가공공장·양식장 등 찾아가며 공부...마을 발전시키려 노력

“청년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더 살맛 나는 어촌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전남도 우수 귀어인으로 선정된 해남 어불어촌계 신재광(38)씨는 어불도에서 ‘인싸’ (인사이드·insider)로 불린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면서 얻어진 별명이다.
 지금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는 2009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 26살의 나이에 고향 어불도에서 아버지의 전복 양식 일을 도왔다. 고향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타지 생활을 했던 신씨는 이웃들에게 사실상 외지인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김 양식장에서 전복 양식으로 전환한 지 첫해였다. 전복 양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터라 먹이 관리를 못해 전복을 굶길 때도 많았다.

신씨는 몸이 편찮은 아버지를 대신해 전복 양식을 배우기 위해 완도와 해남 등 타지역 전복 양식 어가를 찾아가 수개월씩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배웠다.
 그는 “열심히 일해도 날마다 죽어가는 전복을 셀 수 없었다”며 “쉽지 않았지만 일을 배워와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게 됐다. 그 시간이 6년 걸렸다”고 말했다.
 경험을 쌓은 신씨는 2015년부터 아버지의 양식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본격적인 귀어인의 삶을 시작했다. 처음 120칸이던 양식장은 매년 투자를 거듭해 지금은 950칸으로 늘었고, 생산량도 3t에서 25t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주변 마을 청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신씨는 “실패를 거듭하던 전복 양식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경험을 나눠줬기 때문이다”며 “나 역시 그 경험을 마을 선배들에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씨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자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교류도 늘어났다. 조용하지만 근면성실한 그는 이웃들의 추천을 받아 어불어촌계 총무가 됐고, 더 나아가 마을 반장도 역임하게 됐다.
 특히 신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마당에 20평 남짓의 청년모임 공간을 만들었다. 전복 양식을 하는 청년들이 일을 마친 뒤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지식과 비전을 나누는 공간이다.
 “마을 청년들이 모여 토론하고 서로 일을 도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들과 깨끗한 마을, 화합하는 어촌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또 단순 생산에 머무는 어촌의 현실을 벗어나 가공과 판매 역할을 키워 어촌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신씨는 “일이 없는 날이면 전국의 가공공장장과 회사, 양식장 등을 찾아가 공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촌의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



농협 광주본부, 여성 ‘팜투게더’ 연수 마무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오른쪽 세번째)는 6일 담양 먹감촌마을에서 광주 13개 지역농협 소속 85명을 대상으로 두 달 간 진행된 ‘팜투게더’ 연수 과정을 마무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한빛산업개발, 저소득층·수재민 위한 벽지 기부



(주)한빛산업개발(대표 우상호)이 최근 저소득가구와 수재민을 위해 고급벽지 520롤(1200만원 상당)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에 기부했다. 기탁된 물품은 해남 지역 내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동구, 온라인 청소년 인문학 골든벨 시상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최근 ‘온라인 청소년 인문학 골든벨’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김금민(광주 충장중2)군을 포함한 12명이다. 이들에게는 동구 장학재단인 (사)대원장학회, (재)누리문화재단, (사)자비신행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240만원과 문화상품권 20매가 전달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대회에는 동구 지역 6개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누적점수제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수상자가 됐다.

동구는 앞으로 청소년 대상 인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학재단과 인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인문 골든벨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인문’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공고, 병무청과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광주공고는 6일 병무청과 함께 3학년 학생 3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한 사전 직업선호도 검사와 비대면 온라인 화상 강연 등이 펼쳐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내가 가장 예뻐할 때(재)	10 SBS 뉴스 30 설맞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재) 55 UHD 스텐터	00 쌤, 마이웨이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헬로카봇 9 리턴즈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55 뽀빠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①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직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투페이스 스페셜 50 TV 라떼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③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남도에 가요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디큐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05 집중인터뷰 이사람 30 기막힌 유산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도도솔솔라라솔	2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00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⑩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0 라디오스타 1~2부	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⑫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스포츠 하이лай트 40 통합뉴스룸 ET(재)	15 2020-2021 PBA 투어 TS삼포 PBA 챔피언십	10 나이트라인 40 내고향 전파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5:30 클래스 e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6:00 한국기행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6:20 세계테마기행	12:30 클래스 e	19:45 신계속의 맛타사이클 다이어리(재)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7:15 출동! 슈퍼핑크	13:55 EBS 초대석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5 세미와 매직큐브	<아시아 발상 기행 -행복한 한 끼, 베트남>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6:15 로빈 후드	<죽기 전 한 번쯤, 명당 3부 명산에 기대어 살다>
08:3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위인극장 리턴즈	16:50 해오와 해오	22:45 극한직업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곰	23:5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핑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7일(음 8월 21일 癸未) ☎ 010-9790-8237

<p>36년생 예상치 못한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겠으나, 48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타 트리어 너르다. 60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72년생 당래지사가 여의치 않으면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낫겠다. 84년생 상대의 깊은 의중은 따로 있겠으나, 96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니 매사에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 49, 71</p>	<p>42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자리에서 길인을 만날 것이다. 54년생 오류가 보인다면 간과하지 말고 즉시 수정 하는 것이 낫다. 66년생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 78년생 실익이 없겠으나, 90년생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만 한다. 02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15, 82</p>
<p>37년생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49년생 차체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환신을 사기 위한 제사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73년생 자신 있게 진행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으리라. 85년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겠으나, 97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 세이어나가는 것이 없지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41, 52</p>	<p>31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보인다. 43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55년생 임시 변통적인 처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67년생 체면 따지다가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겠으나, 79년생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91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행운의 숫자 : 23, 62</p>
<p>38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50년생 기본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으나, 62년생 지출이 커 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74년생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86년생 막힌 것은 망설이지 말고 풀라. 98년생 기세가 한창 성하여 극상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67, 81</p>	<p>32년생 충출 양상을 띠고 있으니 번거로움은 감수하라. 44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56년생 희망적이다. 68년생 중용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80년생 중복 된다곤 같게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행운의 숫자 : 31, 57</p>
<p>39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51년생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다. 63년생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75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87년생 일관되게 추진되었을 때에만 가능 하리라. 99년생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으나, 행운의 숫자 : 01, 79</p>	<p>33년생 여러 갈래로 세분화 되면서 복잡해질 것이다. 45년생 냉철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리라. 57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9년생 혼잡한 상태에서 바쁘게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81년생 우연의 가장 한 방문자가 보인다. 93년생 인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77</p>
<p>40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나, 52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64년생 빛 좋은 개살구에 현혹 되면 곤란해진다. 76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치열하고 치밀하게 살아가야 할라가 트인다. 88년생 형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용이하다. 00년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0, 94</p>	<p>34년생 소중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46년생 명분은 무의미하니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나, 58년생 강구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나, 70년생 자연스러운 흐름을 애써 막을 필요는 없다. 82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판하지 않는다. 94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96</p>
<p>41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낫다. 53년생 실정에 맞게 대처하고 운용해야 할 때이나, 65년생 나무 오레 동안 뜰어오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77년생 부수적인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89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갈림길에 서 있다. 01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머지않아서 호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03, 89</p>	<p>35년생 시지미를 띠고 태연하게 언행 하는 이가 보인다. 47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리라. 59년생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속이 얼마나 있느냐이다. 71년생 욕식을 가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3년생 모순점이 보인다면 확실히 배제하라. 95년생 속단은 금물이나 겁이 실패 불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7, 75</p>